

유대교와 기독교의 교리 비교

성경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오히려 핍박을 받고 고통을 당했다. 역사적으로 구시대는 새시대를 핍박하고 고통을 주었다. 2000년 전에도 메시아가 오기를 가장 기다리던 유대인들은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니 예수님을 극적으로 오해하고 말았다.

+ 예수님을 향한 갖은 악평

귀신 들린 자 <요 8:48> <막 3:21~22>, 먹고 탐하기를 즐기는 경건하지 못한 자 <마 11:19> <눅 7:34>, 창녀와 어울리는 음란한 자 <마 21:31~32>, 율법 파괴자 <마 12:1~2> <마 15:1~2> <마 5:17> , 하나님의 신성 모독자 <요 8:57~58>, 자칭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요 19:6~7>

+ 결국, 유대인은 예수님을 오해하여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다.

구약 4000년 동안 유대 종교인들은 메시아가 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렸다. 때가 되어 예수님이 말씀을 전해주시며 역사를 진행하셨음에도, 알아보지 못하고 도리어 오해하고 결국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고 말았다

+ 왜 알아보지 못했을까? 「잘못된 인식」 때문이다

유대 종교인들은 메시아 강림관이 잘못되어 있었다. “하나님이 오신다”라는 성경구절을 보면서 아직도 하나님이 안 오셨다고 생각하며 하나님이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다.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신이 강림하여 오신 것이 곧 하나님이 오신 것이지만, 아직도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기다린 것이지 예수님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 메시아 예수님

+ 하나님의 강림 예언

<이사야 66:15>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옹위되어 강림하시리니 그 수레들은 회리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를 베푸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견책하실 것이라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꼭 오실 것으로 생각했다.(단 7:13)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오셨을까? 이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 하나님의 강림의 실체

<사 11:1~2>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호와와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하나님이 강림하셨는데, 영으로 오셨다. 나사렛 목수 요셉의 아들,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신이 강림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신약 말씀을 전하시고 뜻을 펴 나가신 것이다. (사 7:14, 미 5:2, 마 2:1~12)

+ 구약성경의 예언을 이루신 예수님

구약에 하나님은 구름을 타고 오셔서 불과 칼을 가지고 심판하신다고 하셨는데,(사 66:15~17, 사 34:4, 말 4:1, 단 7:13)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분명히 이 예언을 모두 이루셨다.(눅 12:49, 고후 5:17, 히 12:1)

또한,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구약의 예언 말씀도 (겔 37:12, 사 26:19, 단 12:2) 예수님은 분명히 이루셨다. (요 5:24~29)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성경을 어떻게 믿었기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살펴보자.

+ 유대교의 교리

① 하나님께서 강림하실 것이다! <미 5:2> <사 11:1~2>

하나님을 믿었기에 하나님이 사람들의 눈에 보이게 오실 것으로 생각했지만, 예수님이 오셨다.

② 구름 타고 오신다! <단 7:13~14>

메시아가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을 타고 오실 것으로 생각했지만, 예수님이라는 깨끗한 인구름을 타고 오셨다.

③ 말세 때 불로 세상을 심판하신다! <말 4:1~2> <사 66:15~16> <사 24:19~23> <슥 14:4>

하나님이 칼과 불을 가지고 오셔서 문자 그대로 불로 세상을 심판하며, 해/달/별이 떨어지고 천재지변이 일어나며 세상이 무시무시하게 심판받고 멸망당할 것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예수님은 불같은 말씀으로 심판하셨다.

④ 죽은 자를 부활시킨다! <사 26:19> <겔 37:12> <단 12:2>

메시아가 오면 죽은 자들을 살릴 것으로 믿고 기다렸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이 부활이었다.

⑤ 이상세계를 이루신다! <사 11:6~9>

메시아가 오면 문자 그대로 동물 지상천국의 세계를 꿈꾸고 환경의 이상세계가 한순간에 이뤄질 것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예수님을 중심으로 사람의 지상천국이 이뤄졌다.

⑥ 엘리야의 재림 <말 4:5~6>

엘리야가 승천한 그 모습대로 육이 재림할 것으로 생각했지만, 엘리야의 영이 세례요한에게 심정과 능력으로 임했다.

그렇다면 지금의 기독교는 어떻게 성경을 이해하고 있는가? 마찬가지로 몇 가지만 살펴보자.

+ 기독교의 교리

①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육신의 모습으로 오실 것이다!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믿고 있으니 예수님이 2000년전 육신의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으로 생각한다.

② 구름 타고 오신다! <마 24:30~31>

하늘 공중의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믿고 있다.

③ 말세 때 불로 세상을 심판하신다! <벧후 3:8~13>

말세 때 온 세상을 불로 심판하여 멸망시킨다고 주장한다.

④ 죽은 자를 부활시킨다! <살전 4:16~17> <고전 15:51~53>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죽은 육신이 부활된다고 믿고 기다린다.

⑤ 공중으로 휴거된다! <살전 4:16~17>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맞아 우리 육신도 하늘 공중으로 휴거될 것이라고 문자 그대로 믿고 있다.

⑥ 본 그대로 오리라! <행 1:11>

예수님이 구름 속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며 다시 오실 때도 그렇게 오실 것으로 믿고 있다.

안타깝게도 2000년 전 유대인들이 성경을 믿었던 그대로 지금의 기독교인들이 믿고 있다. 성경은 문자 그대로만 보면 크게 오해하게 된다. 섭리사는 선생님의 말씀을 통해 2000년 전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누구보다도 정확하고 분명하게 성경적으로 알려주고 있다. 그리고, 이 시대에 예수님이 영으로 다시 오셨음을 모든 이들에게 전하고 있다.

그러나, 기독교는 말세에 적그리스도 혹은 거짓 선지자가 나타난다고 하며 섭리사를 이단으로 오해하고 있다. 문제는 이단이라고 규정함에 있어서 성경의 가르침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교파의 제도나 전통 등을 기준하여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 성경에서 말하는 이단

- ☞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 <요일 2:22~23>
- ☞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 <요일 4:2~3>
- ☞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것, 하나님의 보낸자를 안 믿는 것 <마 7:21> <요 6:29>

이단이란, 하나님의 섭리 역사의 근본 뜻을 모르는 것이 이단이다. 하나님의 뜻이란 전통이나 교리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다. 노아 때는 노아를, 모세 때는 모세를, 예수님 때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요,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는 교회가 이단이다.

+ 예수님의 영적 재림을 맞은 섭리사

섭리사는 그 어떤 곳보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믿고 따르고 있다. 선생님은 지금도 쉼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받아 섭리사에 전해주고 있으며, 그로 인해 섭리사는 예수님의 영적 재림을 맞았으며, 성경의 예언을 이뤘으며, 성약 역사를 매일 펼쳐나가고 있다.

○ 제대로 알고 믿고 따르라!

+ 모르면(무지하면) 실패한다.

역사를 보면 사람들이 몰라서 싸우고 실패하게 된다. 2000년 전 유대인이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믿듯이, 지금 기성인들도 똑같이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믿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 메시아를 기다리던 유대인이 예수님을 크게 오해한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을 성경 문자 그대로 기다리는 자들은 1000년이 지나도록 예수님의 재림을 맞을 수 없다.